Secondary English Education, 9(2)

아시아 상황의 영어 공통어 자질 연구: 어휘 문법 오류 수정 전략[1)]

이상기 (한국교원대학교)
정현성 (한국교원대학교)
김윤규 (한국교원대학교)[2)]

Lee, Sang-Ki, Chung, Hyunsong, & Kim, Yoon-Kyu. (2016). Features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sian Contexts: Repair Strategies for Resolving Lexico-Grammatical Errors. *Secondary English Education, 9*(2), 89-114.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refers to English used as a communication medium by speakers with different first language backgrounds. This study aims to collect spontaneous conversation data from Asian speakers and build a database on ELF in the Asian context. It is commonly known that ELF has its unique phonetic, lexico-grammatical, and pragmatic features, which were viewed as just errors from the traditional second language acquisition viewpoint. Focusing on the lexico-grammatical features of ELF,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s to uncover what kinds of errors are actually produced by the speakers and in what ways they contribute to communication difficulties, if any.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ELF communication is indeed a dynamic process wherein the conversation participants are employing various repair strategies to resolve those errors and achieve successful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English education in Korea a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ELF research.

1)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583).
2) 이상기: 제1저자; 정현성: 교신저자; 김윤규: 공동저자

Ⅰ. 서론

영어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날로 높아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기에 머지않아 중국어가 영어를 대체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이러한 전망은 중국어가 중국의 언어이듯 영어가 미국의 언어라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기에 이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실로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활용하는 화자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서로 다른 모국어 배경을 가진 다양한 문화권의 화자들이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가장 널리 활용하는 언어, 즉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lingual franca: 이하 ELF)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ELF 의사소통은 영어를 매개로 하는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 예를 들어 원어민 상호간의 의사소통 혹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간의 의사소통과는 여러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지금껏 음성적 측면(Jenkins, 2000, 2002; Walker, 2010), 어휘 문법적 측면(Cogo & Dewey, 2012; Hulmbauer, 2007; Seidlhofer, 2004), 화용적 측면(Firth, 2009; Firth & Wagner, 1997; House, 2002; Meierkord, 2002), 태도, 인식, 정체성 측면(Jenkins, 2007; Mimatsu, 2011), 문화적 측면(Meierkord, 2002; Baker, 2011)등 다방면에서 ELF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ELF 관련한 연구는 이제야 막 걸음마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ELF 연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 *Journal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가 2012년에 시작되었음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유럽을 배경으로 하여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는 실증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Lee,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ELF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수집하고 그들 상호간 의사소통의 양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구안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특별히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의 ELF 발화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화자들이 대화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수정 전략(repair strategies)을 활용하여 상호간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이르게 되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ELF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중등영어교육을 포함한 영어교육 전반에 대해 가지게 되는 함의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Ⅱ. EFL의 개념과 연구의 배경

영어 사용 환경을 내부권역(inner circle), 외부권역(outer circle), 확장권역

(expanding circle)의 셋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Kachru(1992)의 동심원 모형은 영어가 세계무대에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묘사할 때 가장 흔하게 언급되곤 한다. 그런데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동심원 모형은 외부권역은 물론 심지어 확장권역의 화자들조차 영어 학습에 있어 원어민 규범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릇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Graddol, 2006). 또한 해당 모형은 특히 확장권역 화자들의 특성 및 그들 상호간의 문화 간 의사소통의 실제를 올바로 파악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확장권역의 영어 화자의 수는 그간 실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나머지 권역에 속하는 화자의 수를 넘어섰다(Mackenzie, 2014; McKay, 2002). 또한 그들은 단순히 원어민의 규범을 목표로 하여 영어를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실제 영어 사용 역시 원어민 화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확장권역의 영어 화자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목적 하에, 문화, 경제, 스포츠, 정치, 학문 등 각종의 영역에서 타 비원어민 화자와의 문화 간 의사소통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때 외국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가 아닌 ELF라는 개념을 통해 영어 비원어민 화자 상호간 의사소통의 역동성을 비로소 제대로 포착할 수 있게 된다.[3)]

ELF는 본래 비원어민 화자 상호간 의사소통의 수단을 이르는 개념이었다(Firth, 1996; House, 1999). 그러던 것이 근래 들어 영어 원어민 화자를 포함하는 의사소통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정의에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은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대화 상대자, 즉 비원어민 화자에게 규범 제공자의 역할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Seidlhofer, 2011). 그리고 그러한 전제 조건을 통해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들인 'International English,' 'EFL'등으로부터 ELF에 대한 명확한 구별과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진다(Seidlhofer, 2004).[4)]

한편, 대화 참여자 중 어느 누구도 규범을 제공하는 역할을 떠맡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ELF 연구의 궁극적 목적과 관련하여 간혹 제기되는 오해와 혼선을 피할 수 있다. ELF 연구는 그를 통해 ELF 의사소통만의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i.e., the 'codifiability' issue; Jenkins, 2007;

3) Lee(2013)에 따르면 전통적인 EFL 관점에서의 비원어민 화자는 언제나 무언가 부족한 학습자로 비춰지기 마련임에 비해('deficit' perspective), ELF 관점에서의 비원어민 화자는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자로 인식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difference' perspective).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ELF를 언어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수행이 아니라 '다중 언어 능력(multicompetence)의 구체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Mackenzie, 2014, p. 31).

4) ELF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문헌에서는 'variable,' 'hybrid,' 'heterogeneity,' 'dynamic,' 'accommodative,' 'adaptive,' 'unpredictable,' 'uncertainty,' 'diversity,' 'legitimate variation,' 'innovative,' 'creative,' 'deterritorialized' 등과 같은 다양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설명을 제공하여 왔다.

Seidlhofer, 2011). 그보다는 ELF 사용 맥락과 관련한 사회언어학적 이슈들에 대한 주의 환기와 그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연구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의 ELF 연구는 주로 ELF 의사소통 과정에서 영어 비원어민 화자들이 보이는 음성적 측면(Jenkins, 2000, 2002; Walker, 2010), 어휘 문법적 측면(Cogo & Dewey, 2012; Hulmbauer, 2007; Seidlhofer, 2004), 화용적 측면(Firth, 2009; Firth & Wagner, 1997; House, 2002; Meierkord, 2002), 태도, 인식, 정체성 측면(Jenkins, 2007; Mimatsu, 2011), 문화적 측면(Meierkord, 2002; Baker, 2011) 등의 특징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지금껏 연구가 이뤄진 맥락도 다양하여, 비즈니스(Ehrenreich, 2010; Pitzl, 2005), 학술(Mauranen, 2012; Smit, 2010), 국제저널(Lillis, Hewings, Vladimirou, & Curry, 2010) 등 다양한 배경에서의 ELF 의사소통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선행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이 유럽에서 이뤄졌기에(Berns, 2009; Breiteneder, 2009; cf. Deterding & Kirkpatrick, 2006),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권을 배경으로 하는 ELF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ELF 코퍼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대표적으로 비엔나 대학에서 구축한 VOICE(the Vienna-Oxford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는 100만 단어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ELF 의사소통 데이터베이스로서, 50개의 서로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비원어민 화자 1,250명으로부터 120여 시간에 이르는 자연스러운 대화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ELF 코퍼스의 또 다른 예로 ELFA(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cademic Settings)는 2001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핀란드의 네 개 대학을 배경으로 51개의 서로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화자 650명으로부터 역시 100만 단어 수준의 방대한 ELF 대화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지금껏 구축된 이와 같은 코퍼스 역시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ELF가 가지는 함의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대화 자료의 축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ELF가 영어교육에 있어 가지게 되는 중요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아직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어 살피고자 하는 ELF의 어휘 문법적 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강성숙과 이상기(2012)가 현직 영어 교사들이 그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를 설문을 통해 알아본 바 있고, 해당 연구에 기반하여 황혜원과 이길영(2015)이 후속 연구를 행한 바 있다. 강성숙과 이상기의 연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Seidlhofer(2007)가 제안한 바 있는, 의사소통에 있어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 용인 가능하다 여겨지는 아홉 종류의 어휘 문법적 요소들에 주목하여(e.g., 3인칭 단수형 형태소 *-s* 회피, 관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등의 비표준적 사용,

make, *do*, *have*, *take* 등의 보편적 동사의 과도한 사용, 부가의문문 *isn't it?*의 과도한 사용 등) 총 112명의 현장 교사들이 그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아직은 ELF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교사들의 성별, 나이, 교육경력, 근무환경 등 여러 하위 변인에 따른 교사들의 태도를 살폈는데, 그 결과 나이가 어리고 교육경력이 짧을수록, 또한 학교급이 높을수록 ELF의 어휘 문법적 요소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LF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유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ELF에 대한 논의가 향후 보다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맥락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화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ELF 의사소통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ELF 의사소통의 여러 특징들 중,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화자들이 실제 어떠한 종류의 어휘 문법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수정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5] 본 연구는 기존의 ELF 연구의 연장선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실증 연구가 부족했던 아시아권 ELF 화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영어의 확산과 발달에 있어 주체적 동인으로 기능하는 ELF 화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절실한 상황에서 (Seidlhofer, 2004, p. 214)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관련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Ⅲ. ELF 코퍼스 구축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ELF 의사소통 자료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2년여에 걸쳐 진행된 *아시아 상황에서의 영어 공통어 자질 연구*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와 홍콩에서 수집되었다. 해당 연구는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ELF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음성적, 어휘 문법적, 담화 화용적, 사회언어학적 측면 등에서 ELF의 특징을 두루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5) 본 논문에서는 표준적 형태에서 벗어나는 ELF의 어휘 문법적 요소들을 "오류"라고 일렀다. 해당 요소들을 이를 수 있는 적절한 용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오류"라는 용어의 사용이 ELF 의사소통의 고유한 특징에 대해 본 연구자들이 전통적 SLA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ELF 대화 유도 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ELF 코퍼스는 다양한 소재와 맥락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실제 대화 자료를 토대로 구축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격식성과 개방성의 변인을 추가로 고려하여 총 24개의 대화 유도 자료가 활용되었다. 대화 주제 선정 과정에서는 그것이 ELF 화자들로 하여금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화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민감한 주제는 아닌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이뤄졌다. 대화 유도 자료에 활용된 여섯 가지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
나. 직업 선택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다. (대화 참여자의 국가에서)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영화
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
마. 좋은 교사의 자질
바. (대화 참여자의 국가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2. ELF 화자 정보

본 연구가 바탕을 두고 있는 ELF 코퍼스 구축을 위해서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 출신의 ELF 화자 총 20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의 국적은 한국, 터키,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파키스탄, 타이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ELF 화자들에게는 그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고유한 식별 번호가 부여되었다. 이어 상호간 언어적 배경이 다른 네 명의 화자들을 묶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였다(e.g., Group 1: SP1, SP2, SP3, SP4). 다음으로 각 집단의 ELF 화자들은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하여 총 여섯 종류의 대화 쌍을 구성하였다(e.g., SP1-SP2, SP1-SP3, SP1-SP4, SP2-SP3, SP2-SP4, SP3-SP4). 이때 각각의 대화 쌍에서의 대화는 모두 서로 다른 주제 하에 이뤄졌으며, 그 시작에서 종결까지의 시간은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총 300개의 대화 쌍 자료가 구축되었고, 이는 총 3,000분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ELF 코퍼스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 대화자의 성취도 수준을 별도로 통제하지는 않았다(Mauranen, 2010). 연구에 참여한 ELF 화자들에게는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다.

3. ELF 대화 자료 녹음 및 전사

국내에서 진행된 ELF 대화 자료 녹음은 주로 음향분석실의 방음 녹음실에서 이뤄졌으며, Adobe Audtion® 3 프로그램과 Tascam Audio Interface US144L, Rode NT1-A 마이크를 사용하였고, 44.1 kHz 표본화(sampling)와 16 bit 양자화(quantizing)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 변환하였다. 이에 비해 국외에서 진행된 대화 자료 녹음은 휴대용 디지털 녹음기인 Tascam DR-100과 Tascam HD-P2를 활용하였고, audio-technica ATM-75 헤드셋을 사용하였다. 각각 별도의 채널에 녹음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채널이 사용되었으며, 역시 44.1 kHz 표본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변환하였다. 대화의 녹음은 참여자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녹음된 모든 대화 자료는 담화 및 대화분석 연구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Atkinson과 Heritage(1984)의 전사 부호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사되었다(<부록>의 본 연구의 전사 원칙 참조).

4. 자료 분석 방법

그간의 여러 연구들은 원어민과 비원어민 상호간 의사소통에 비해 ELF 의사소통에 있어 대화의 단절이나 어려움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밝혔다(Cogo, 2009; Mauranen, 2012; Seidlhofer, 2011). 아마도 대화 참여자 상호간 성공적인 의미 협상(meaning negotiation)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은 ELF 의사소통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닐 것이다. 일찍이 Grice(1975)는 대화의 과정이 협력 이론(Cooperative Principle)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대화 참여자간 협력의 과정이 ELF 의사소통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원어민 화자 상호간 의사소통 혹은 원어민 화자가 개입된 여타의 의사소통에 비해 비원어민 화자만이 참여하게 되는 ELF 의사소통에서는 대화 참여자들 모두 언어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서로에 대해 보다 용인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마련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의 발화상 오류로 인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의사소통의 단절 혹은 어려움에 대해 아시아권 ELF 화자들의 경우 실제 어떠한 종류의 수정 전략을 활용하여 의미 협상을 해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휘 문법적 요소와 관련한 의사소통의 단절이나 어려움의 빈도, 다양한 수정 전략들의 상대적인 빈도 및 성공률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는

다. 의사소통의 단절 혹은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실상 ELF 의사소통에 고유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에서나 빈번할 것이며, 따라서 대화 참여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그 양상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업일 것이다.

IV. 연구 결과

1. ELF 의사소통의 역동성

ELF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화자의 부족한 언어 자원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의미 협상 과정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대화는 중국인 화자(SP102)와 한국인 화자(SP103) 간에 이뤄진 젊은이에게 인기 있는 영화와 관련한 대화의 일부이다.

[Extract 1. SP102: Mandarin L1 speaker; SP103: Korean L1 speaker]
097 SP103: Yeah, that movie was really good as well.
098 SP102: Yes, what about I think, most girls like, umm, TV series.
099 SP103: TV series.
100 SP102: Especially from Korea.
101 SP103: Yeah, Korean dramas. Yeah, but I don't like watching dramas.
102 Because it is like I have to watch everyday.
103 SP102: Uhm, uhm. Yes, yes.
104 SP103: But the movie, I just, I just can finish in one day, [right?
105 SP102: [Oh, well.
Because, they update one or two =
106 SP103: =In one day
107 SP102: In one week, maybe.
108 SP103: Yeah,
109 SP102: You have to waiting, waiting.
110 SP103: Wait? I can't wait
111 SP102: You can't wait.
112 SP103: Yeah, I can never wait.

113 SP102: But, actually, my many of my friends are crazy about ( ).
114 SP103: Korean dramas?
115 SP102: Yeah, yes, Korean dramas. Especially, the heroes in it?
116 SP103: What, what?
117 SP102: The heroes?
118 SP103: Aha
119 SP102: Ah, yeah. They are very really handsome.
120 SP103: Ah, yeah very cute. What drama did you watch recently?

97행까지 두 사람은 대만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 SP102는 98행에서 해당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TV 시리즈의 인물들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그에 대해 SP103은 99행에서 SP102가 발화한 "TV series"를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갑작스레 언급된 TV 시리즈에 대해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을 알린다. 그러자 SP102는 대화 상대방이 한국인임에 착안하여 "Especially from Korea"와 같이 발화함으로써 영화의 등장인물들이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예쁘게 생겼다는 뜻을 전달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SP103은 이어지는 101행에서 "Korean dramas"를 언급하고(비록 맥락상 "TV series"가 보다 적절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어 자신은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면서 화제 전환을 시도한다. 103행에서 SP102는 "Uhm, uhm. Yes, yes"와 같이 발화함으로써 그러한 화제 전환에 대해 다소 당황하면서도 바로 그에 동조하며 전환된 주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간다. 한편, 미처 종결되지 않은 SP102의 105행 발화에 대해 SP103이 106행에 이르러 "In one day"와 같이 그 종결을 돕고 있으며, 이에 대해 SP102는 다음의 107행에서 "In one week, maybe"라는 비슷한 구조의 발화 패턴을 활용하여 앞선 발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영화와 달리 드라마는 1주마다 내용이 업데이트되기에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SP102는 말한다(109행). 이때 SP102는 "You have to waiting, waiting"과 같이 비문법적인 구조를 활용한다. 이에 대해 SP103은 "Wait? I can't wait"와 같이 발화함으로써 앞선 발화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이어 자신은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참을 수 없다는 말을 덧붙인다. 이때 110행의 SP103의 발화에 대해 SP102는 이어지는 행에서 "You can't wait"와 같이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SP102가 SP103의 선행 발화를 토대로 wait의 올바른 형태를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110행에서 112행까지는 "I can't wait," "You can't wait," "I can never wait"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를 통해 표현하며 상호간 대화를 지속해 나가는 현상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TV 시리즈에 대한 주제를 애초 도입했던 SP102는 115행에 이르러 Korean dramas를 본인이 직접 언급하면서 SP103

에 의해 유도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린다. 그리고 이어 “Especially, the heroes in it?”와 같이 말하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SP103은 heroes라는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결과 “What, what?”과 같이 명료화 요청(clarification request) 전략을 활용한다(116행). 그러자 SP102는 117행에서 “The heroes?”와 같은 재진술을 통해 상대의 이해를 돕는다. 이상의 대화는 ELF 화자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역동적인 것이며,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의 부족한 언어 자원에도 불구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충분히 성공적인 의미 협상을 이뤄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ELF 발화 오류의 실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LF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 상호간의 적극적 협력 및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역동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ELF 화자들의 부족한 언어적 자원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tract 1을 통해 보자면, 사실상 “TV series”가 보다 적절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Korean dramas”와 같이 표현하거나, “You have to wait”과 같이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You have to waiting”이라 말하고 있는 장면 등에서 ELF 화자들의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ELF 화자들은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오류를 생산해내고 있었다.

[Extract 2. SP138: Mandarin L1 speaker; SP140: Urdu L1 speaker]
3 SP140: =Have you ever think about that?
4 SP138: um: maybe I: have ( ) ↑ but hhh um: yeah I think ↑
uh: Korean mans ↑ uh: Korean man (it−) dif− different ↑
with Japanese man ↑ =
5 SP140: =yeah=

Extract 2는 대만 출신 화자 SP138과 파키스탄 출신 화자 SP140 간의 대화이다. SP140은 3행에서 과거분사 thought를 써야 하는 자리에 think를 사용해 현재완료 의문문을 구성하고 있다. SP138은 한국 남자를 표현함에 있어 Korean mans과 Korean man을 헷갈리고 있다. 두 화자 모두 어휘와 문법 측면에서 완벽하지 못한 능력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Extract 3. SP193: Cantonese L1 speaker; SP194: Madarin L1 speaker]

36 SP 194: [so it was, it was more motivational for me.
37 Because that was relating to my studies and that was giving me the rules to spend my life
38 And, and the difficulties any engineer can have can have, in his life
39 and how he have to face the problems.
40 It was about, it was about engineers, [their life in hostel and their difficulties,
41 SP193: [Yeah, yeah.]
42 SP194: and finally they have the conclusion of the movie,

위 대화는 마카오 출신의 화자 SP193과 중국 출신 화자 SP194 간의 이뤄진 그들 사이에 인기 있는 영화에 대한 대화이다. 비교적 긴 턴(turn)을 유지하고 있는 SP194의 발화에는 have 동사의 용례가 네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 39행의 have는 주어-동사 간의 수일치를 고려하여 has로 표현되어야 옳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바대로 ELF 화자들의 경우 3인칭 단수형 형태소 *-s*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 맥락에서 SP194는 불규칙 동사 have에 대해서 표준 어법의 변화형을 구사하는 대신 원형의 동사 형태를 통하여 발화를 실현하고 있다. 3인칭 단수형 형태소 관련 오류는 사실 매우 빈번히 나타난다.

(1) ... strong woman and she know her subject very well because and she can uh like she ( ) knowledge [SP16: Kazakh L1 speaker]
(2) He's really he respect to nature. He likes nature farther and he sorry she and the she know what she like and she don't insist um appearance and she is uh she is the girl like [SP6: Mandarin L1 speaker]

다음의 예시에서 살펴볼 수 있듯, 타동사의 목적어 생략도 ELF 발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는 생략된 목적어에 대한 상호 이해가 맥락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류들로 보인다. 한편, 아래의 예시에서 SP72는 "he can is also concentrate on the students"에서와 같이 불필요한 is를 삽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ELF 발화에서 빈번한 오류 중의 하나이다.

(3) then he will know immediately and ran he was during the presentation he can is also concentrate on the students. [SP72: Mandarin L1 speaker]

(4) So but she never she never only focus on boyfriend but also care cares about a lot. [SP69: Korean L1 speaker]

관사는 제2언어화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ELF 의사소통에서는 필요한 관사를 생략하거나, 불필요한 관사를 삽입하거나, 혹은 잘못된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아래의 예시들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So I just have question for the our movie [SP60: Vietnamese L1 speaker]
(6) If you don't have family then you don't need any job. When you have family, you you need job to the family. [SP95: Urdu L1 speaker]
(7) Although ideally I would consider um the relating to my field of interest would be the most um important factor when comes to looking for a job, but sometimes um the: the opportunities are not that abundant. [SP96: Filipino L1 speaker]
(8) And I don't have the time to get stress, because I'm too busy with my life like have to work have to study [SP107: Bengali L1 speaker]

제2언어화자들은 전치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관사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곤 한다. 다음의 예시들에서는 불필요한 전치사를 삽입하거나, 필요한 전치사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전치사를 사용하는 사례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9) I love to go some, uh, some place is near the countryside but not hiking to the hill or yeah, yeah. [SP195: Cantonese L1 speaker]
(10) Yes, what about I think, most girls like, umm, TV series. [SP102: Mandarin L1 speaker]
(11) Yeah. Someone who is not Muslim, you can't marry with him. [SP30: Malay L1 speaker]
(12) I think important point is you have to interest it. [SP100: Nepali L1 speaker]
(13) Sure, I am agree you so [SP97: Japanese L1 speaker]

ELF 의사소통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창의성에 있다. ELF 화자들은 어휘 능력

이 제한적인 이유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창의적으로 생산해내거나 기존의 표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ELF 의사소통의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14) because, because I like a because I, we live in modernal world, so we don't know [SP6: Mandarin L1 speaker]
(15) I will leave here with, with more handsome salary but I cannot satisfy my heart [SP 95: Urdu L1 speaker]
(16) Yeah, running, and now, if, if, I need to keeping my in shape, I will do gym, gym, gym, gymming, yeah. [SP195: Cantonese L1 speaker]

이상에서 살폈듯, ELF 화자들은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류들은 전통적 관점에서는 원어민의 표준적 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필히 교정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어휘 문법 측면에서의 오류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제적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ELF 화자들은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비표준적 어휘 문법의 사용으로 인해 혹여 야기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여러 가지 수정 전략을 활용하여 해결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ELF 화자들에 의해 실제 활용되었던 수정 전략을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 수정 전략의 실제

ELF 화자들이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의 오류들에 대해 적용하는 수정 전략은 크게 자가 수정(self-repair)과 타인 수정(other-repair)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자가 수정 역시 다시 여러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중 반복하기(repetition)를 통한 자가 수정은 ELF 화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는 전략 중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ELF 코퍼스에서도 그 사례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Extract 4. SP166: Mandarin L1 speaker; SP168: Cantonese L1 speaker]
16 SP166: and I, I really don't care about the salary, [or
17 SP168: [Ah.
18 SP166: something or the the welfare something like that, and I think the most import, important part is that what
19 (are you) could do something that really show yourself, show

your ability, and really am: take uh: just
20 make use of your advantages↑, yeah.
21 SP168: Yes, making use of our advantages is one of the: most (very very) important ah: factors.
...
56 SP166: [So the company have to pay you for the retirement?
57 SP168: Ah if you are from for the government, you, if you work, work for the government,
58 SP166: Ah, [okay.
59 SP168: [for: many many years,
60 SP166: A[h:
61 SP168: [so the government has to pay you ah ( ) fee.`

위 대화에서 SP166과 SP168은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이때 SP166은 18~20행에 걸쳐 "import"를 "important"로, "take use of your advantages"를 "make use of your advantages"로 수정하는 등 동일한 턴 내에서 여러 차례의 자가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SP168 역시 57행에서 "if you are from for the government"라는 부정확한 발화를 동일한 턴 내에서 "if you work for the government"와 같이 자가 수정하고 있다. 자가 수정 전략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의사를 보다 분명한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혹여 있을 수 있는 의사소통에서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다. 한편, 이상의 예시는 화자 스스로 행한 반복하기의 예로서 이해될 수 있다(i.e., 'self-initiated repetition'). 반면 다음은 대화 상대방에 의해 유도된 반복하기의 사례가 된다(i.e., 'other-initiated repetition').

[Extract 5. SP14: Vietnamese L1 speaker; SP16: Kazakh L`1 speaker]
86 SP14: So which course did you like the most?
87 SP16: What? What?
88 SP14: Which course you like?

베트남 출신의 SP14는 86행에서 카자흐스탄 출신의 화자 SP16이 어떤 교과목을 가장 좋아했는지를 묻고 있다. 이때 SP14의 발화에는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SP16은 87행에서 SP14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명료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하는 "What? What?"과 같은 SP16의 발화에 대해 SP14는 이어지는 행에서 "Which course you like?"와 같이 자가 수정을 행함

으로써 SP16의 이해를 돕고 있다. 중요한 점은 SP14의 88행에서의 발화는 도리어 문법에 어긋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는 ELF 화자들이 상호간 원활한 의미 협상을 위해 (비록 그것이 원어민 규준에 비추어 올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단순화된 발화를 보다 선호하며, 그를 통해 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ELF 화자들은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발화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거나,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명시적인 명료화 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 앞선 예시들과 같이 자신의 발화를 거의 되풀이 하여 말하는 형태로서 자가 수정을 시도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고쳐 말하기(rephrasing)를 통해 의사 전달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Extract 6. SP190: Chinese L1 speaker; SP191: Korean L1 speaker]
11 SP190: And for me, I think some, ( ) to favorite, my favorite sport is yoga.
12 SP191: Yoga, oh, [that sounds novel. Heheheh.
13 SP190: [Yeah, I think it's, it's also quite, quite, and not, um, don't need too much energy, maybe
14 SP191: Pardon?
15 SP190: Not very intense.
16 SP191: Intense, [oh.
17 SP190: [Yeah.

[Extract 7. SP119: Mandarin L1 speaker; SP120: Malay L1 speaker]
031 SP120: I'm not sure whether I'll eat more but sometimes yes but sometimes when I'm really uh depressed or I
032 have no more- I- I can't eat a lot. Yeah.
033 SP119: Hm.
034 SP120: I don't have any appetite to eat.

Extract 6에서 SP190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인 요가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고 표현하고자 하나 "... it's also quite, quite, and not, um, don't need too much energy"와 같이 비표준적 형태의 don't를 사용함은 물론 불필요한 부정어구 not을 덧붙여 삽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대화 상대자 SP191은 "Pardon?"과 같은 발화를 통해 명료화를 요청

하게 된다(14행). 이에 대해 SP190은 15행에서 “Not very intense”와 같이 앞선 발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고쳐 말하였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은 비로소 의미 협상에 성공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Extract 7에서 SP120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끔 과식을 하지만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각할 때에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SP120의 실제 발화는 “... I have no more- I- I can’t eat a lot”와 같이 비표준적 형태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SP120은 SP119의 33행에서의 반응을 통해 그가 자신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알고 이어지는 34행에서 “I don’t have any appetite to eat”와 같이 고쳐 말하기를 수행함으로써 의미 협상을 다시금 시도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Extract 8 역시 명료화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고쳐 말하기를 수행한 예시가 된다. 21행에서 SP98의 발화 중 “mention”의 의미를 SP97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이를 23행에서 “say”로 고쳐 말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mention”이 표준적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화 상대방의 언어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자 맥락상 비표준적 표현을 동원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선 Extract 5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다 단순화된 표현을 통해 협력적으로 의미 협상하고자 하는 ELF 의사소통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Extract 8, SP97: Japanese L1 speaker; SP98: Tagalog L1 speaker]
19 SP97: I am exchange student in Korea so, (2.5) so, the people is not that different people and different culture
20 so I have some ( ) but I don’t want to suicide.
21 SP98: Why did you mention suicide?
22 SP97: Mention?
23 SP98: Why did you say suicide? Does it happen a lot in Japan?

때론 고쳐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전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대화는 중국 출신 화자와 몽골 출신 화자 간 전개된 대화의 일부이다.

[Extract 9, S45: Chinese L1 speaker; SP48: Mongolian L1 speaker]
40 SP45: Yeah, oh, um, which can you come from?
41 SP48: Uh?
42 SP45: What can come from?
43 SP48: Which country?
44 SP45: Which can you come from, um uh, what’s your country?

45 SP48: Ah, I'm from Mongolia.

SP45는 SP48이 어느 국가 출신인지를 묻고 싶어 하나 부족한 언어 자원으로 말미암아 "... which can you come from?" "What can come from?"과 같이 비표준적 표현을 구사할 뿐이다. SP45는 41행, 43행에 걸쳐 이뤄진 SP48의 명료화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거듭 고쳐 말하기를 시도한 결과 맥락상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what's your country?"와 같이 발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로소 SP48이 몽골 출신이라는 답변을 얻게 된다. ELF 화자들이 상호간 협력과 존중의 태도로 역동적으로 의미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상으로 우리는 ELF 화자들이 예견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혹은 실제 발생한 의사소통의 장애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자신의 발화를 수정해 나아가는 과정을 들여다보았다. 한편, 이러한 자가 수정의 사례 이외에도 대화 상대방에 의해 발화의 수정이 이뤄지는 타인 수정의 경우도 빈번하였다.

[Extract 10, SP145: Cantonese L1 speaker; SP148: Jiang Huai L1 speaker]
07 SP148: So do you know what kinds of sports are popular your country?
08 SP145: Um actually, I think that um something that do not require such a large space is
09 popular in Hong Kong. But in my country China, um I know that it is famous for badminton,
10 SP148: =yeah
11 SP145: =table tennis, and but I think in Hong Kong, it is very popular for us, too, right? Bicycle,
12 SP148: =yeah
13 SP145: =and do jogging, and swimming.
14 SP148: In also hiking [I think.
15 SP145: [Yes.]
16 SP148: Yeah, um so can you can we why people in Hong Kong like riding a bike or jogging?
17 SP145: Um, because riding a bike or jogging is a good way to relish your daily pressure,

SP148이 홍콩에서 인기 있는 운동 종목을 묻자 SP145는 11행과 13행에서 "Bicycle and do jogging, and swimming"과 같이 비표준적 형태를 활용하여 응답하고 있다. 그러자 16행에서 SP148은 "Bicycle"과 "do jogging"에 대해 각각 맥락상 올바른 형태인 "riding a bike," "jogging"을 사용하여, 이번에는 그러한 운동이 홍콩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묻는 내용으로 대화를 확장한다. 비표준적 형태가 비록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현에 대해 SP148이 타인 수정을 시도하고, 이러한 타인 수정 내용이 SP145에 의해 받아들여져 17행에서 올바른 형태의 발화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이 흥미롭다.

그런데 타인 수정이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Extract 11, SP9: Korean L1 speaker; SP11: Thai L1 speaker]
103 SP9: And subject knowledge, subject knowledge, yeah, he was very, he knew everything
104 (be)cause he was also studying for this, uhh, master's degree↑.
105 SP11: uheh
106 SP9: Bach−, the, the final one↑.
107 SP11: Ah, doctor degree=
108 SP9: =doc−, doctor [degree]?
109 SP11: [Yes].
110 SP9: He was studying for that, (0.59) so, he, he had a lot of knowledge even though he was young.

SP9는 기억에 남는 선생님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박사 학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찾지 못하고 있다(103~104행, 106행). 그러자 SP11은 107행에서 "Ah, doctor degree="와 같이 타인 수정을 행하고 있고, 그에 대해 SP9는 다음 행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발화를 행하고 있다. 타인 수정으로 성공적인 의미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예시이나 박사 학위의 정확한 표현은 "doctor degree"가 아니라 "doctoral degree"일 것이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ELF 화자들은 다양한 수정 전략을 통해 어휘 문법적 측면의 오류를 수정하기도 하거니와, 때론 따라 말하기(echoing)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 상대방의 오류 발화를 특별한 수정 없이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의미 협상 자체를 의사소통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상호간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ELF 의사소통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된다.

[Extract 12, SP117: Cantonese L1 speaker; SP119: Mandarin L1 speaker]

2 SP119: Umm, so I think what makes a good teacher is, uhh, for me, uhh,

3 teacher that is friendly, (that's when to ...) perhaps, umm, speak to you during the class but also after class

4 (you want that) really keeps you a good smile (not want that) always black face when he sees you, I think that's

5 one thing.

6 SP117: (Surely.) Yeah, I, I mean those, those black face teachers, uhh, we may not, we may not want to face them or ask them questions.

위 대화에서 SP119는 좋은 교사의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black face"를 언급하고 있다. 대화의 맥락상 이는 화난 듯 좋지 않은 표정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물론 이는 표준적인 쓰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117은 6행에 이르러 SP119가 사용한 표현 "black face"를 그대로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SP119가 창의적으로 고안한 비표준적 표현을 특별한 수정 전략의 적용 없이 그대로 따라 말하면서 의미를 협상해 나아가는 장면이 된다.

다음의 대화에서도 따라 말하기 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역시 수정 전략을 통한 오류 수정 보다는 의미 협상 쪽을 택한 결과이다.

[Extract 13, SP194: Mandarin L1 speaker; SP195: Cantonese L1 speaker]

44 SP194: How about yoga? Heheh, maybe girls [prefer (them], yeah.

45 SP195 : [Oh, I've never play yoga.

...

52 SP195: Is it difficult?

53 SP194: Um... some movements is quite difficult, especially for the fat people, uh, huh.

54 SP195: Because it's very slow, the movement, movement is very slow, right?

위 대화에서 두 사람은 요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SP195가 요가가 어렵냐고 묻자 SP194는 요가 동작이 어렵다고 답한다. 그런데 "요가 동작"에 대한 올바른 표현은 "yoga movement"라기 보다는 "yoga position"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194에 의해 창의적으로 표현된 movement(s)라는 표현이 SP195에

의해 특별한 자가 수정 혹은 타인 수정 없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이상으로 우리는 그간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ELF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에 착안하여, 그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살펴봄으로써 아시아권 ELF 화자들의 의사소통의 실제에 대해 관찰을 시도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내용과 크게 다름없이(e.g., 강성숙과 이상기, 2012; Seidlhofer, 2007), 본 연구의 아시아 ELF 화자들의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도 시제, 타동사, 3인칭 단수형 형태소, 관사, 전치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오류 및 창의적 언어 사용 사례 등 ELF의 고유한 어휘 문법적 특징들이 풍부하게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비표준적 언어 사용 용례들이 대화 참여자 간에 오해를 야기하거나 상호간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ELF 화자들이 의미 협상을 위해 서로에 대해 협력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들은 보다 원활한 의미 협상을 목표로 다양한 수정 전략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예견되는 어려움이나 실제 발생한 장애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수정 전략은 크게 자가 수정과 타인 수정으로 나타났으며, 자가 수정은 다시 자기 유도 반복하기 및 타인 유도 반복하기 등으로 대별되는 반복하기 전략과 고쳐 말하기 전략 등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한편, 오류들의 많은 경우가 스스로에 의해 혹은 대화 상대방에 의해 수정되곤 하였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 ELF 화자들은 특별한 수정 전략의 적용 없이 따라 말하기 전략을 통하여 상대방의 오류 발화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었다. 언어 사용의 정확성 보다는 의미 협상의 성공 여부가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장면이었다.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미처 행하지 못하였으나, 어휘 문법적 측면에서의 오류들 및 해당 오류들에 대해 적용되는 수정 전략들의 상대적 빈도를 살피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휘 문법적 오류에 치중하여 분석이 이뤄졌으나, 여타의 언어 요소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부족했던 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ELF 의사소통에 대한 실증 자료로서 충분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들에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영어교육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점하고 있는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우

선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된 지 이미 130여 년이 지났다. 또한 공시적 관점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열의와 학계의 연구 활동은 가히 열풍에 가깝다 하겠다(이상기, 2010).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지금껏 많은 성과를 일구어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지금껏 우리가 던져온 질문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영어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가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지금껏 일구어온 성과 이상을 향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영어교육의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껏 우리는 원어민의 규준만을 목표로 하여 영어교육을 행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원어민 간의 의사소통이 빈번해져가는 상황에서 ELF 의사소통의 특징을 올바로 파악하고 그를 반영한 목표 설정이 다시금 이뤄져야 한다. 자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게 되는 대상은 영어 모국어 화자가 아니라 또 다른 비원어민 화자가 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이다. "보다 더한 혹은 보다 덜한 원어민"이란 개념적 이해가 점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Trudgill, 1995, p. 315; Mackenzie, 2014), "원어민 versus 비원어민"과 같은 과거의 이분법적 분류나 정의는 반드시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 및 학습 자료의 구성에도 ELF 요소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옳다. 우선, 교사는 물론 영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영어와 영어로의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인식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LF 의사소통에서의 특징들을, 기존의 관점에서와 같이 단순한 오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영어 사용의 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실 현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구현해야 할 것이며, 학습 교재나 수업 자료에도 ELF의 특징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다룸으로써 학습자들이 영어로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ELF의 특징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숙, 이상기. (2012).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어 자질에 대한 한국인 영어 교사의 인식 및 태도 조사: 어휘 및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영어학, 12*(3), 379-401.

이상기. (2010). 한국 영어교과교육의 발전 방안으로서의 연구 종합. *영어교과교육,*

9(3), 163-179.

황혜원, 이길영. (2015).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교사의 인식과 어휘 및 문법자질에 대한 반응 연구. *영어교과교육, 14*(3), 263-283.

Atkinson, M., & Heritage, J. (Eds.) (1984). *Structures of social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ker, W. (2011). Culture and identity through ELF in Asia: Fact or fiction? In A. Archibald, A. Cogo, & J. Jenkins (Eds.), *Latest trends in ELF research* (pp. 35-52).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Berns, M. (2009). English as a lingua franca and English in Europe. *World Englishes, 28*, 192-199.

Breiteneder, A. (2009). English as lingua franca in Europe: An empirical perspective. *World Englishes, 28*, 256-269.

Cogo, A. (2009). Accommodating difference in ELF conversations: A study of pragmatic strategies. In A. Mauranen & E. Ranta (Eds.), *English as a lingua franca: Studies and findings* (pp. 254-273). Newcastle upon Tyn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Cogo, A., & Dewey, M. (2012). *Analys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A corpus-driven investigation.* London: Continuum.

Deterding, D., & Kirkpatrick, A. (2006). Intelligibility and an emerging ASEAN English lingua franca. *World Englishes, 25*, 391-410.

Ehrenreich, S. (2010). English as a business lingua franca in a German multilingual corporation.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47*, 408-431.

Firth, A. (1996). The discursive accomplishment of normality: On 'lingua franca' English and conversation analysis. *Journal of Pragmatics, 26*, 237-259.

Firth, A. (2009). The lingua franca factor. *Intercultural Pragmatics, 6*, 147-170.

Firth, A., & Wagner, J. (1997). On discourse, communication, and (some) fundamental concepts in SLA research. *Modern Language Journal, 81*, 285-300.

Graddol, D. (2006). *English next.* London: British Council.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pp.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House, J. (1999). Misunderstanding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teractions in English as a lingua franca and the myth of mutual intelligibility. In C. Gnutzmann (Ed.),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pp. 73-89). Tubingen: Stauffenburg.

House, J. (2002). Developing pragmatic competence in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K. Knapp & C. Meierkord (Eds.), *Lingua franca communication* (pp. 245-267). Frankfurt: Peter Lang.

Hulmbauer, C. (2007). 'You moved, aren't?': The relationship between lexicogrammatical correctness and communicative effectiveness in English as a lingua franca. *Vienna English Working Papers, 16*, 3-35.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New models, new norms, new go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enkins, J. (2002). A sociolinguistically based, empirically researched pronunciation syllabu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3*, 83-103.

Jenkins, J. (2007). *English as a lingua franca: Attitude and ident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achru, B. B. (1992). Models for non-native Englishes. In B. B. Kachru (Ed.), *The other tongue: English across cultures* (pp. 48-74).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Lee, K. (2013). *Accommodation in ELF communication among East Asian speakers of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UK.

Lillis, T., Hewings, A., Vladimirou, D., & Curry, M. J. (2010). The geolinguistics of English as an academic lingua franca: Citation practices across English-medium national and English-medium international journals. *World Englishes, 20*, 111-135.

Mackenzie, I. (2014). *English as a lingua franca: Theorizing and teaching English.* New York: Routledge.

Mauranen, A. (2010). English as an academic lingua franca: The ELFA project.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9*, 183-190.

Mauranen, A. (2012). *Exploring ELF: Academic English shaped by non-native spea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Kay, S. (2002). *Teaching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Rethinking goals and approach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eierkord, C. (2002). 'Language stripped bare' or linguistic masala'? Culture in lingua franca communication. In K. Knapp & C. Meierkord (Eds.), *Lingua franca communication* (pp. 109-133). Frankfurt: Peter Lang.

Mimatsu, T. (2011). ELF versus EFL: Teaching English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 Archibald, A. Cogo, & J. Jenkins (Eds.), *Latest trends in ELF research* (pp. 251-268). Newcastl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itzl, M. L. (2005). Non-understanding in English as a lingua franca: Examples from a business context. *Vienna English Working Papers, 14*(2), 50-71.

Seidlhofer, B. (2004). Research perspectives on teach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209-239.

Seidlhofer, B. (2007). Common property: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Europe. In J. Cummings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137-153). Dordrecht: Springer.

Seidlhofer, B. (2011). *Understand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mit, U. (2010).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higher education.* Berlin: de Gruyter Mouton.

Trudgill, P. (1995). Linguistic oppression and the non-native speaker. *Journal of Pragmatics, 23*, 314-317.

Walker, R. (2010).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부록. 전사 원칙(cf. Atkinson & Heritage, 1984)

부호	원칙
[	동시에 말이 시작된 부분들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	말이 겹치는 시작과 끝 부분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seɪ]	발화의 발음을 나타낼 때 필요한 경우 이 부호를 사용함
=	다음 차례의 말이 앞의 말에 바로 이어서 시작되어 간격이 없음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분절음이나 음절이 연장되어(늘어져서) 발화되었음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잠시 머뭇거릴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	필요한 경우 올림조나 내림조의 억양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갑작스럽게 끊기는 발화 부분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____	강조되어 발화되는 부분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0.5)	발화 사이의 쉼 간격을 초단위로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	전사자(연구자)의 설명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 )	전사가 불가능한 발화 부분이나 전사한 내용이 확실치 않음을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hhh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한 기식(aspiration) 구간에 이 부호를 사용함
heh	웃음소리를 나타낼 때 이 부호를 사용함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s: All levels
Key words: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문화 간 의사소통, (오류) 수정 전략, 의미 협상 /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pair strategies, meaning negotiation

이상기
한국교원대학교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230-3513
Email: slee@knue.ac.kr

정현성
한국교원대학교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230-3554
Email: hchung@knue.ac.kr

김윤규
한국교원대학교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TEL: 043-230-3516
Email: ykyu@knue.ac.kr

접수 일자: 2016. 4. 11
심사 일자: 2016. 4. 29
게재 결정: 2016. 5. 03